

대표축제 박람회 '인기상'

군산시간여행축제 홍보 · 군산관광 매력 알리

군산시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에서 대한민국 베스트 축제어워드 기초자치단체 부문 인기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2021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는 '축제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축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한국지방신문협회가 주최하고 (주)한국전시산업원이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공사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 · 군수 · 구청장협의회가 후원한 행사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 107개 지자체와

67개 업체 등 174개 부스가 참여해 지역의 대표축제를 홍보하고 이벤트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돼 풍성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특별한 일상으로의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로 군산의 대표축제이자 전북 최우수축제인 시간여행축제를 알리고 근대문화유산 고군산군도, 새만금 등 군산의

관광자원을 중점 홍보했다.

또 '그리운 군산향', '박대가 대박이야' 등 군산을 소재로 하는 노래와 이벤트 등으로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축제 기념품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안현중 관광진흥과장은 "군산을 대표하는 시간여행축제가 작년에 코로나19로 취소되어 올해 변화된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는데, 뜻밖에 인기상까지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전국민 백신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지켜가며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시간여행축제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9월을 맞는 시간여행축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할 예정으로 오는 9월 온라인, 10월 9일~11일, 16일~17일, 23~24일, 30~31일까지 현장축제를 시간여행마을 및 원도실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군산=한영봉 기자



군산시보건소와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스트레스를 겪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 심리방역 우리가 지킨다

군산시보건소 ·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 · 원예치료요법 제공

군산시보건소와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스트레스를 겪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줄고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평소 가볍게 느껴던 우울감이 심화되고, 감염병 확산에 대한 두려움, 불안 등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증가했다.

보건소는 정신건강상담전화(☎445-9191)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스트레스 등에 대한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안정화기법 문자메세지를 발송해 왔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코로나19

19 자가격리자에게 원예꾸러미 제공을 통한 심리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실내에서 직접 원예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새싹키르기 키트와 반려식물 1종, 마음건강을 응원하는 메시카드 등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자가격리자 중 희망자에게 제공한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앞서 지키는 일은 가장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시민들이 지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445-9191)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고병만기자

군산시 꿈꾸는어린이집 '바자회' 통한 나눔 실천

군산시는 꿈꾸는어린이집(원장 주인경)이 어린이집 아동들과 함께 후원물품(라면 25BOX)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꿈꾸는어린이집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부모와 함께 나눔바자회를 진행하고 모아진 후원금으로 생필품을 구입해 전달했다. 후원물품은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중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가정에 지원할 예정이다.

주인경 꿈꾸는어린이집원장은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돼 무척 기쁘다. 아이들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석권 아동청소년과장은 "어려서부터 배려와 나눔을 배운 아이들이 있는 군산시에 미래가 기대된다"며, "도움을 준 꿈꾸는어린이집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군산=남영봉 기자

'고백愛 콩닥! 익산愛 훌딱!' ... '500만' 관광도시로

익산시, '2022년 방문의 해' 총력... 체류형 관광 강화

익산시는 '2022년 익산 방문의 해' 성공 추진에 주력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는 이 행사를 통해 500만 관광도시로의 도약에 나선다.

시는 이 행사의 슬로건을 '고백愛 콩닥! 익산愛 훌딱!'으로 선정했다.

이 슬로건은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사랑이 넘치는 마음, 고도

백제 익산으로 여행하는 설레는 마음을 담았다.

시는 슬로건을 오는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022 익산 방문의 해' 관련 사업에 활용한다.

시는 500만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2022년을 지역 방문의 해로 정하고 5개 분야 30개 과제를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관광상품과 콘텐츠 개발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행사 분위기 조성에 집중한다.

특히 가족단위 관광객을 겨냥한 프로그램, 농촌체험마을 등을 통한 체류형 관광을 강화하고 지역 주요 관광지까지 연결하는 교통수단 확대도 접근성을 강화한다.

시는 이를 통해 관광도시 이미지 강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 나운2동 -천안시 북면, 우수농산물 직거래 장터 성료

군산시 나운2동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양성관)가 자매결연 도시인 천안시 북면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우수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직거래 장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위기에 빠진 농민들을 돕기 위해 실시했으며 당일 판매행사는 별도의 주민자치위원 간 교류행사 없이 농산물 현장 판매만으로 진행됐다.

지난 23일에는 나운2동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천안시 북면의 우수 농산물



인 단호박을 사전접수 방식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400명(1방당 5~6kg) 정도 판매했다. 28일에는 천안시 북면사무소에서 군산시의 대표 농산물인 흰찰 쌀보리 1,000포대(1포대당 5kg) 정도를 판매하는 등 두 도시의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나운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천안시 북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이후 매년 우수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및 지역문화축제 참여 등 꾸준한 교류로서 상호 간의 우호 증진과 신뢰를 쌓아오고 있다.

양성관 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준비해주시는 나운2동 천안시 북면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농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도 두 기관의 우호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남영봉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